

# 무속 공간모형에 의한 남사마을 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김동찬\* · 이윤수\*\* · 임상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 경희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An Interpretative Study on the Nam-Sa Village Space By Shamanistic Space Model

Kim, Dong-Chan\* · Lee, Yonn-Su\*\* · Lim, Sang-Jai\*\*\*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Kyung Hee

\*\*Department of Visual Desig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Graduate Schoo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Kyung Hee

### ABSTRACT

Shamanism is an ancient culture that is also considered as a religious rite by most of people. So, shamanism is an important part of Korean tradition and should be a significant base to the Korean exterior space organization theme.

However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principle of exterior spacing has not yet clearly been identified as shamanistic. Therefore believe that this study can exhibit a model for the study of shamanistic space language and its application to one of Korean's village Nams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1. Extracted models are Unspecialized · Circular · Continuous space. These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shamanistic space language. Also shamanistic space languages are based with Korean common belief of eternal human identity, circular view of the world.
2. Applying the shamanistic space models to Namsa village shows that shamanistic space models follow the Korean space organization principle. Some areas of the village do not apply, because they were built on the structure of the social hierarchy between families or the difference between head households and collateral households.

3. Applying the shamanistic space model to Namsa village shows that the shamanistic space model follows the Korean space organization principle. Therefore can say that Namsa village was built by a shamanistic system that pursued eternal human identity.

*Key Words* : Shamanism, Shamanistic space model, Shamanistic space language, Namsa village

## 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인간은 물질적인 사고에만 집착하여 공간에 대한 풀이 방법이 기능주의적 입장에 치우쳐 정신적 사고에 의한 공간해석이 부족하다. 이런 정신적 사고측면에서 무속은 민중들이 함께 즐기고 축원을 드렸던 고대 제천의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역사적 성행성과 자의적 참여가 뛰어난 정신 문화유산이다. 이 의미는 무속의 사상체계가 민중의 생활사고 방식 저변에 자리잡고 공간창조의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주변의 공간을 창조할 때 무의식적으로 생활사고 방식을 적용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속의 사상체계 내에서 공간조영요소를 추출해 내는 것은 외부공간을 다루는 조정분야에서 공간의식에 대한 관점확대와 전통사상에 대한 재인식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무속사상 내에서의 공간조영의식에 주목하여 '공간'과 '무속사상'의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왕기(1983)는 한국고건축물의 형이상학적 상징성을 무속적 견지에서 연구하여 유형화하였다. 박명덕(1984)은 무속적 제의의 특성이 한국건축의 위계성 표현에 주요한 인자였고 우주의 원리를 지상에 재현한 것으로 보았으며, 신왕신(1991)은 한국무속사상속에 내포된 공간관념을 가시화 하여 전통건축물에 적용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국의 고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물 내부의 구조나 배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무속사상에 의한 외부공간의 해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무속의 '역사적 성행성'과 '자의적 참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외부공간의 해석의 틀로서 김태곤(1980)의 무속 사상체계속에서 무속공간모형을 도출해 내는 것과 이 사상체계에 근거하여 공간해석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된다. 즉, 한국무속사상의 공간적인 내용을 밝혀내어 공간언어로 인자화 하여 무속 공간모형으로 발전시켜, 이 모형으로서 남사마을의 외부공간을 해석하여 무속사상이 한국인의 여러 공간조영의식중 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김태곤(1980)의 무속사상체계 분석을 통하여 공간형성인자와, 무속공간모형, 무속공간모형의 적용 등을 논하고자 하였다.

김태곤의 무속사상체계는 그가 민간 층의 무속사상을 20여 년간의 현장답사를 통해서 정리, 분석하여 논리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는 연구업적으로서 본 연구의 기초내용이 되었다.

무속공간모형의 적용사례지는 기본적으로 도시화의 여파가 미치지 않아 마을 형성시기의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南沙)마을이 선정되어졌다.

### 3. 연구의 방법

발표된 논문과 단행본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무속사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차적으로 김태곤(1980)의 무속사상체계에 근거하여 무속공간언어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상어휘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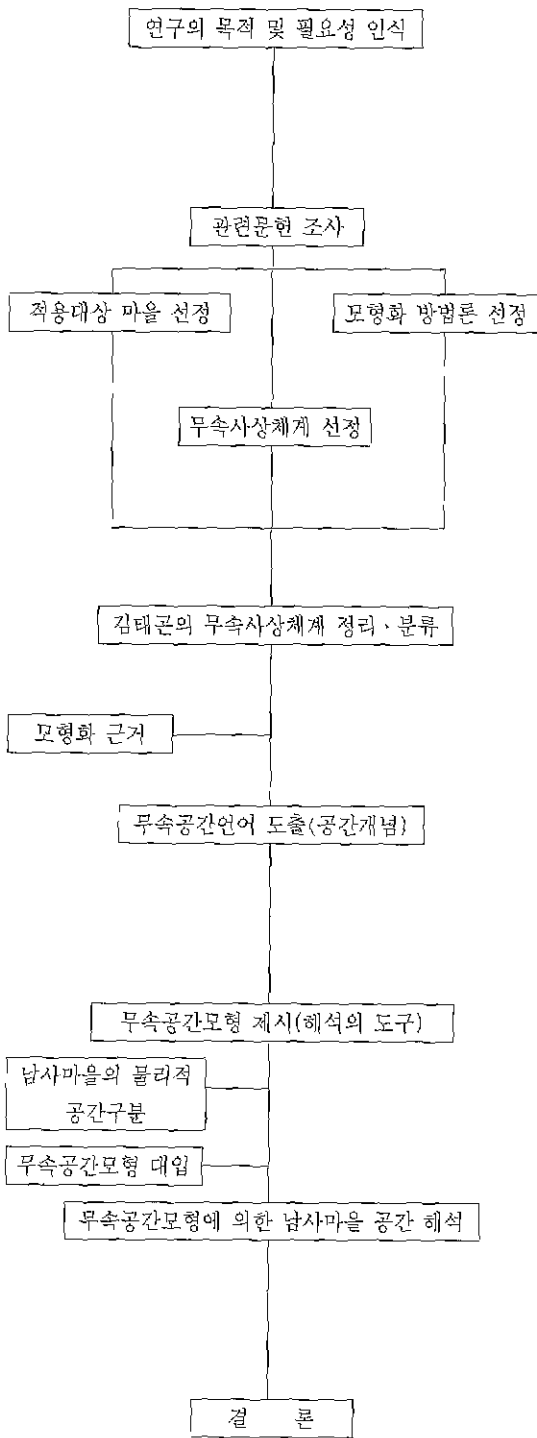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과정도

정리된 내용을 기초로 무속공간모형의 전신인 무속 공간언어를 추출하고, 이 무속공간언어가 바탕이 되어 소쉬르의 기호구조체계(김경숙, 1996)에 의거해 무속 공간모형을 도출한다. 모형은 의미론적 형태와 물리적인 형태로 나뉘져 무속 공간모형의 내용과 형식을 갖게 된다. 의미론적 형태는 정신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물리적인 형태는 구체적 현실계에서 보여질 수 있는 시각적 내용을 담는다.

각 무속 공간모형은 남사마을에 적용·분석하여 보고 공간조영요소로써 모형을 검증한다. 남사마을에 모형을 적용할 시 체계적 해석을 위해 전통마을을 상당(上堂)·중당(中堂)·하당(下堂)으로 구분(강선중, 1984; 최진영, 1987; 강동진 등, 1992)"하여 해석한다. 이 구분은 전통마을의 일반적 물리형태를 대부분 수용한다고 보여진다.

남사마을의 인문·자연적인 내용은 기존 논문, 보고서를 이용하고, 사용될 평면도는 입수된 1/5,000지형도와 단행본(92 IFLA 한국조직위원회 편)의 것을 보정하여 사용한다.

## 2장. 무속공간모형화

### 1. 용어의 정의

#### 1) 무속

무속(巫俗)이란 단어는 "무당의 풍속 또는 무당의 세계에서 관용되는 풍속"(조홍윤, 1997:24) 또는 "민간 층에서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전승되는 종교적 현상"(김태곤, 1982:199)이라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 가지는 무속의 의미는 양자의 정의에 관련한다. 즉 무속은 옛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토속적이고 대중적인 종교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속을 인간이 신과의 관계에서 성립되고 파생된 일종의 전통적인 사상체계로서 이해한다.

#### 2) 공간언어

건축에서의 공간개념은 자연과 대응된 단순한 셀러나 인간과 관계한 외계와 적리된 세계(공간)(윤성호, 1987)라고 보는데 비해, 조경의 공간은 인간질존과 자

연환경과의 ‘반응적 환경’<sup>2)</sup>을 만들고, 이에 기인한 정성적인 특성을 갖춘 외부공간이라 하겠다. 정성적인 외부공간은 인간의 심성, 가치체계와 같이 정량화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지배적일 것이다.

언어란 “인간들 사이에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어떤 공통적 의미체계”(김영정, 1997:15)이며 여기서의 공간언어 의미는 인간들의 사고체계중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체계를 추출하여 정성적인 공간을 형상화 할 수 있는 상징을 뜻한다

이 상징은 공간의 성질을 나타내며, 인간의 추상적 관념과 공간 본질성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성을 띄게 된다면 공간구체화의 구성요소가 된다.

### 3) 무속공간모형

무속이라는 사상체계 중 공통적인 의미를 분류하여, 공간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상징체계를 구분하고(무속 공간언어) 이를 시각적 형상으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정적인 해결책<sup>3)</sup>을 무속공간모형이라 할 수 있다.

‘가정적인’이라는 의미는 공간언어에서 언급한 상징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다. 상징이 “존재와 사유의 거리를 매워 주는 도구”라 정의(이영태, 1986:6)될 때, 무속공간모형은 무속사고체계와 현실형상사이에서 ‘가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sup>4)</sup> 무속이라는 한국전통사고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무속공간모형은 세계적 보편성보다는 한국의 외부공간에 보편성을 띄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2. 무속 공간언어 분석

무속공간모형의 기초가 되는 무속사고는 무속의 세계관, 영혼관, 내세관 등에서 유추된 내용으로 윤곽이 나타나며 이의 분석을 통해 공간언어가 작성된다.

### 1) 무속사고의 윤곽

무속사고는 무속의 종교의례인 ‘굿’과 무당의 행동과 말 등에서 찾아 낼 수 있다. 그래서 김태곤은 수년 동안 여러 지방의 ‘굿’과 무당과의 면담 내용을 채취·연구하여 무속의 사상체계를 ‘한국무속연구’라는

책을 통해 정리한바가 있다. 다음은 그의 무속사상체계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어휘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1) 존재<sup>5)</sup>의 기준

김태곤의 무속사고에서는 존재의 영구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보통인간의 사고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육신의 물리적 존재성이 상실되므로 인간의 존재는 없어진다고 믿지만, 무속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믿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sup>6)</sup>는 것이다.

저승으로 갔던 영혼이 거기서 영생하거나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나와 인간의 몸에 있다가 또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순환성에 기초해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영혼은 저승으로 가서 이 세상에서 잃어 버렸던 공간성과 시간성을 영원히 획득하므로 불멸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을 영혼으로 보면서 이렇게 불멸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려고 한다.

정리하면 인간의 존재는 육체라는 가시적 유형존재와 영혼이라는 불가시적 무형존재의 이원론적 결합으로 본다. 그래서 유형존재는 공간성과 시간성의 제약을 받고, 영혼은 이 두 가지의 영원성을 획득함으로써 존재기준의 가치를 획득한다.

공간성과 시간성에 대한 사고 예는 굿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당은 굿을 하기 전에 부정(不淨)굿을 함으로써 현실계(공간과 시간)를 소거시킨 다음 태초 이전의 혼돈(Chaos)<sup>7)</sup>으로 돌아가 그 속에서 인간들이 바라는 이상의 존재를 다시 획득하여 자기 존재를 영구히 지속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 (2) 원본사고(原本思考)<sup>8)</sup>

존재의 영구지속을 위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그 존재근원인 ‘카오스’의 영원 쪽에서 존재를 보는 사고가 존재근원에 대한 원질사고(原質思考)로 이것이 무속사고의 ‘원본(原本)’이 되고, 이 존재근원에 대한 원질사고의 ‘본(本)’이 ‘카오스’의 미분성(未分性)으로 이것이 또한 무속사고의 ‘원본’이 된다.

그래서 무속의 원본사고는 존재의 근원을 ‘카오스’로 보고 존재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코스모스’에서 다시 ‘카오스’로 순환(循環)되어 존재가 ‘카오스 ↔ 코스모스’의 순환 체계 위에서 영원히 존속된다

고 믿는 존재 근원에 대한 원질사고 ‘폐턴’이다.

### (3) 카오스의 미분성(未分性)과 코스모스

카오스는 어둠의 혼돈뿐이어서 공간도, 시작과 끝의 시간개념도 없는 무공간 무시간의 영원계이다. 이 우주의 근원인 카오스는 빛이 없는 암흑의 혼돈개념이지만, 하늘과 땅의 ‘공간’과 그 공간이 열리면서 시작되어야 할 ‘시간’이 시작되지 않은 채 텅어리로 뭉쳐져 있기 때문(신왕신, 1991)에 미분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 카오스의 미분성은 존재의 시발점이며 그 존재가 코스모스에서 공간성과 시간성을 잃어버려 영원성의 위협을 받을 때 회귀하여 존재근원성을 획득함으로써 존재의 영원성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 같은 의미로 무속에서는 굿이라는 제의 속에서 인간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신들과의 지속성을 무당을 통해서 카오스의 미분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존재의 영원성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무속공간언어

이 공간언어라 함은 기본적으로 탐구된 무속사고유편 속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요소들이며, 장소적인 형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상어휘들이다.

### (1) 미분성

여기서의 미분성이란 용어는 “분화되지 않고 한데 영켜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 미분화의 혼돈 속에는 분화로부터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질서 이전의 것이어서 개체의 분화적 독립이 있을 수 없는 카오스적인 것이다”(김태곤, 1980:482). 이것은 원초적 생명력과 근원성이 감지되고, 또한 인간활동의 동력원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명에 관계되는 모든 인간활동이 자연적 상황인 미분성으로부터 분화하려는 인위적 행위이며, 이렇게 분화된 인위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또 그 분화 이전의 미분화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귀적이며 순환적인 구조가 인간활동의 동력원이 되는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 (2) 순환성

“순환성은 무엇이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거나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지속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상태로 변해 돌아와며 교체되는, 상태가 반복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김태곤, 1980:489). 즉 A에서 B로, B에서 다시 A로, 그래서 A는 A로 B는 B로 고정되거나 끝나지 않고 A와 B의 교체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간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A와 B의 개체분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카오스적 미분성의 연장 변화상태라 볼 수 있고 어느 쪽에서 보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는 존재지속현상이라 볼 수 있다.

### (3) 지속성

“미분성의 기반 위에 순환성이 있고 이 양자는 존재의 지속성으로 이어진다”(김태곤, 1980:492). 즉, 여기서 사용되는 ‘지속성’은 존재의 기준으로서 인간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경험의 자유를 의미한다. 곧 존재가 공간과 시간의 영원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속성은 자연적 상황으로부터 분화되어 나오지 않은 자연적 상황 그대로의 것 속에서 같이 영구히 순환지속 되어 가려는 존재의 영구지속 욕구로도 볼 수 있다.

## 3장. 무속 공간모형작성

### 1. 무속공간 모형화

#### 1) 모형화 근거

무속공간언어인 미분성, 순환성, 지속성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미분공간, 순환공간, 지속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

첫째, 언어라는 개념이 의미론적 지시체계이며 언어 외적 세계에 대한 지시를 의미한다(김영정, 1997)고 볼 때 이 무속공간언어는 외부공간을 지시하여 정신적 이미지를 장소적인 형상으로 발전시킨다. 그래서 미분성, 순환성, 지속성은 각각이 의미하는 언어적 의미체계에 의해 공간 형상인 공간모형을 지시한다.

둘째, 공간모형이 ‘가정적인 상징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무속공간모형은 무속공간언어의 의미를 잇는다. 무속공간언어의 실체는 무속사상체계의 요소이며, 이것은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sup>10)</sup>의 표출이다. 인간내면에 이런 무의식은 같은 의미체계를 지향하려고 하여 자신이 사는 공간에 대한 ‘가정적인 상징’을 내포하게 된다. 즉, 공간언어의 ‘같은 의미체계에 대한 지향’의 맥락을 공간모형의 ‘가정적인 상징의미’가 있는 것이다.

2) 무속공간모형의 세분화

위 근거에 의거해 무속공간언어는 무속공간모형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무속공간모형의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성질 설명 속에서 모형자체의 가정적인 의미의 구체화를 위해 ‘조형공간(造形空間)’으로 세분되어 진다.

(1) 미분공간

미분성이 “원초적 생명력과 근원성”(김태곤, 1980: 482)을 내포하므로 미분공간은 생명의 근원적 장소인 우주공간의 이미지를 뜻한다. 드넓은 우주공간은 무방향을 띠며 이것은 C. Norberg-Schulz의 우주적 경관(Cosmic Landscape)<sup>11)</sup>과도 관계하여 개방공간이 된다.

미분성이 “분화되지 않고 한데 엉켜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 미분화의 혼돈 속에는 분화로부터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질서 이전의 것이어서 개체의 분화적 독립이 있을 수 없는 카오스적인 것이다”(김태곤, 1980 : 482)라고 정의된다면 이 미분공간의 또 하나의 세분화 의미는 승화공간이 된다. 이유는 무속의 종교의례인 “신령과 인간이 만나는 곳”(조흥윤, 1997:219)인 곳에서 무당은 곳의 상황을 미분화의 혼돈-카오스-으로 만든다는 설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당이 설정한 장소에서 인간은 신을 만나 자신의 회·노·애·락을 승화시키는 것이다.

세분화된 공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개방공간(開放空間) · 비어있는 공간의 의미로 여러 가지 행동을 수용할 수 있고, 우주공간의 이미지로서 근원적 생명력이 있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②승화공간(昇華空間) : 무속의 수직적 우주관<sup>12)</sup>과 관계하는 공간으로 이 수직적 의미는 천상과의 통로를 의미하며 인간과 천신과의 상호연락 통로이다. 이 수직 운동과 그 발생지역이 승화공간에 해당된다.

(2) 순환공간

순환성은 대상이 존재상태로 지속되지 않고, 변화되고 교체·반복된다는 의미라고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순환공간과 그의 세분화의미도 이에 준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순환공간은 본질현상의 교체순환 의미로 해석되는데 교체순환은 “끊김 없이 되풀이하여 주기적으로 돈다”(한국사전편찬위원회, 1980. 102)<sup>13)</sup>는 의미를 내포하고, 주기적으로 도는 것은 선

의 궤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형공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교체순환이 가지고 있는 선의 궤적 개념이 폐합되어 도형적 형태를 이루면 중정이 가지는 안과 밖의 개념<sup>14)</sup>과 상통하여 중정공간이 생긴다.

①선형공간(線形空間) : 순환의미는 기본적으로 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선은 연결되어 막힘이 없는 공간이 해당된다.

②중정공간(中庭空間) : 선형공간이 이루는 공간형태의 변형으로 외부 공간적이며 내부공간적 지역이다.

(3) 지속공간

‘지속성’은 존재의 영구지속 욕구의 의미로 무속공간언어에서 언급되었는데, 지속공간과 그의 세분화 의미도 이 존재의 영구지속을 추구하는 수단성을 강조하여 해석된다. 김태곤의 무속사상체계에서 존재의 영구지속은 미분화의 혼돈(카오스)→세분화(공간과 시간성 획득)→공간과 시간성을 잃어버림→미분화의 혼돈(카오스)의 순서로 해석(김태곤, 1980)된다. 이 과정은 끊임 없이 계속되는 것이고 각 단계는 존재의 영구지속을 위해 메개적 역할과 과정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속공간의 세분화는 존재의 영구지속을 위한 과정에 주목하여 메개공간과 과정적 공간으로 된다.

①메개공간(媒介空間)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공간 사이에서 공간끼리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유기적 융합의 매체가 되는 공간이다.(김경숙, 1996)

②과정적 공간(過程的 空間) . 지속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 주요한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전위적이고 과정적인 역할을 하며 공간의 심연성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김경숙, 1996)

공간모형의 도출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무속공간모형 도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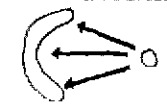

무속공간언어		무속 공간모형	
		공간형상	조형(造形)공간
미분성	존재근원성	미분 공간	개방공간
	분화독립이 전의 성질		승화공간
순환성	본질의 현상교체	순환공간	선형공간
	존재의 순환성		중정공간
지속성	본질의 영구성	지속공간	메개공간
	연속		과정적 공간

3) 무속공간모형의 도식화

각 무속공간모형은 소쉬르의 기호구조체계<sup>15)</sup>를 응용하여 작성된 다음과 같은 도식<sup>16)</sup>으로 설명되어진다.



(1) 미분공간의 도식

표 2. 미분공간

기의(의미론적 형태)	기표이미지(물리적 형태)
개방공간	
승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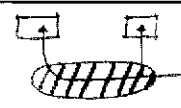

(2) 순환공간의 도식

표 3. 순환공간

기의(의미론적 형태)	기표이미지(물리적 형태)
선형공간	
중정공간	

(3) 지속공간의 도식

표 4. 지속공간

기의(의미론적 형태)	기표이미지(물리적 형태)
미개공간	
과정적공간	

면형태상으로는 하회마을과 유사한 반월형 지형이나 그 사회구조가 하회마을과는 다르게 여러 문중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남사마을은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지형적 특성

남사마을은 마을을 북쪽으로 감싸고도는 소하천 ‘청계’를 경계로 남쪽의 반월형 부분을 ‘남사월’, 그 북쪽 부분을 ‘상사월’이라 하여 구분하여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마을공동체로서 생활이 영위되어 왔다. 그러나 면적으로 보나 실제 주택호수로 보나 ‘남사월’의 부분이 보다 중심을 이루고 있어 연구의 중심된 구역을 남사월로 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전체 남사마을은 지형적으로 반월형(半月形)구조이다. ‘남사월’은 마을의 중심부에 반월형의 땅을 경작지로 남겨두고 이곳에는 절대로 집을 짓지 못하게 하여(달이 차며 기운다는 의미로) 빈터를 여태껏 유지해 오고 있다.

2) 인문적 특성

“이 마을에는 현재 6개 문중의 양반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배적인 성씨는 ‘이’ 씨와 ‘박’ 씨인데 이중에서도 ‘이’ 씨가 먼저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두 문중은 경관적인 면에서 그들 각각의 우세성을 경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92 IFLA 조직 위원회편, 1992:276)고한다. 먼저 ‘이’ 씨 문중은 그들의 증가 덕을 남사월의 반월형 빈터를 마주하고 입지함으로써 평면적 ‘중심성’을 통해 그들의 우위를 표현코자 했다면, ‘박’ 씨 문중은 그 이후 상사월의 ‘니구산’ 기슭에 그들의 문중재각을 지어 남사월을 굽어보게

### 4장. 무속 공간모형에 의한 남사마을 공간 해석

1. 대상마을개관<sup>17)</sup>

대상마을은 진주 남강 상류의 사행천이 돌아드는 분지 상에 입지한 남사마을이다. 남사마을의 특성은 평



그림 2. 남사마을 지형도

함으로써 입면적 '수직성' 을 통해 이를 표현코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입면적 '수직성' 과 평면적 '중심성' 은 문중간, 계파간, 반상간의 입지상의 위계질서 등 세부적 질서 체계로 발전하여 마을공간조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2. 해석

남사마을을 물리적인 공간구조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서 무속공간모형을 적용시킨다. 적용 체계는 기의와 기표적 구조에 따라 분석된다.

물리적으로 구분된 각 공간에 우선 상징적 의미를 찾아보고 각 조형공간으로 구분한다. 최종적으로 기표적 형상을 부여하여 모형의 과정을 마친다.

물리적으로 구분된 각 마을공간에 공통적으로 3가지 무속공간모형 중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공간모형의 실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을공간구성에 투영된 여러 인자들 중 어느 요소가 부각되거나 지양되었기 때문이다.

무속공간모형을 남사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정주 공간은 그 나름의 고유한 의미와 질서를 지니게 되는데, 특히 전통사회의 공간에서는 신성함이 주된 역할을 한다"(이필영, 1995:15)는 관점에서 기인한다.<sup>16)</sup> '신성함' 이란 뜻은 신(절대자)의 존재를 믿는 인간에게만이 느껴지는 감정이고 이 감정을 바탕으로 인간은 자신의 주거환경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남사마을도 이러한 '신성함' 을 기초로 공간질서가 부여됐다는 것이다.

### 1) 남사마을의 물리적 공간의 구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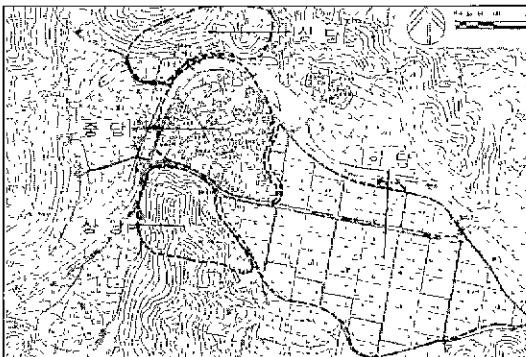


그림 3. 남사마을의 물리적 공간구분

(1) 상당 : 주거지 뒤쪽에 위계가 높은 곳으로 니사제, 당산나무 주위 등의 마을성화공간과 대나무, 소나무 밀식지가 해당된다

(2) 중당 : 주민들의 주생활 공간으로 주거공간, 마을을 돌아다니는 청계, 마을내의 소규모공간, 반월형 공터 등이 해당된다.

(3) 하당 : 주민의 경제적 터전이 되는 공간이 주(主)가 되며 마을내 소규모 안뜰과 큰 규모의 바깥뜰이 해당된다

### 2) 미분공간적 측면

정주(定住)공간은 기본적으로 "신성함이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필영, 1995:15)이고 "인간의 실존적인 정위성"(C. Norberg., 김광현 역, 1985:43) 추구로 인해, 천상의 절대적 존재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려는 의도가 배어있는 곳이다. 이런 인간의 신성지향성에 의해 미분공간이 나타난다.

(1) 상당 · 상당에서 나타나는 미분공간적 측면은 성화공간이 주로 나타난다.

니사제는 남사마을의 지배적인 성씨 중 하나인 '박' 씨 문중의 문중제각으로 상사월 '니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니사제는 문중 조상을 모시는 곳이다. 기일마다 이곳에 모여 천상에 있다고 믿어지는 조상에게 축원을 함으로써, 집안의 평안을 비는 것이다. 즉 니사제는 지상의 인간과 천상의 조상신을 연결하여 지상의 평화와 조화를 기원하는 성화 공간이다.

남사월 남측에 '당산' 에 위치한 '당산나무' 주위공간은 당제가 열리는 공간이다. 당산나무는 천상의 신과 지상의 인간을 수직적으로 연결해주는 통로의 의미로, 그 주변공간을 속된 공간과 성화된 장소(M. Eliade,



그림 4. 남사마을 성당의 미분공간



이은봉 역, 1998)로 구분한다. 결국 당제의 대상이 되는 당산나무 공간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비는 수직적 기원 양상 때문에 성(聖)의 공간으로 되어 승화 공간이 된다.

(2) 중당 : 중당은 마을의 주(主)된 공간인 주거지가 위치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반월형 지형이 개방공간으로 주거공간이 승화공간으로 나타난다.

개방공간으로서 '반월형 지형'은 남사월의 중심부 접근로 빈터에 위치한다. 이 지형은 동형반복을 통한 마을경관 강화의 의도와 연관되어 물리적 개방지형상의 특징으로 개체분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생명력(미분성)을 뜻해 보인다.<sup>19)</sup> 사물의 개체분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생명력을 마을 주민에게 부여하여, 성화되고 살아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마을 주민은 항상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로 안정감과 정위감(正位感)을 가진 채 마을 내에서 살아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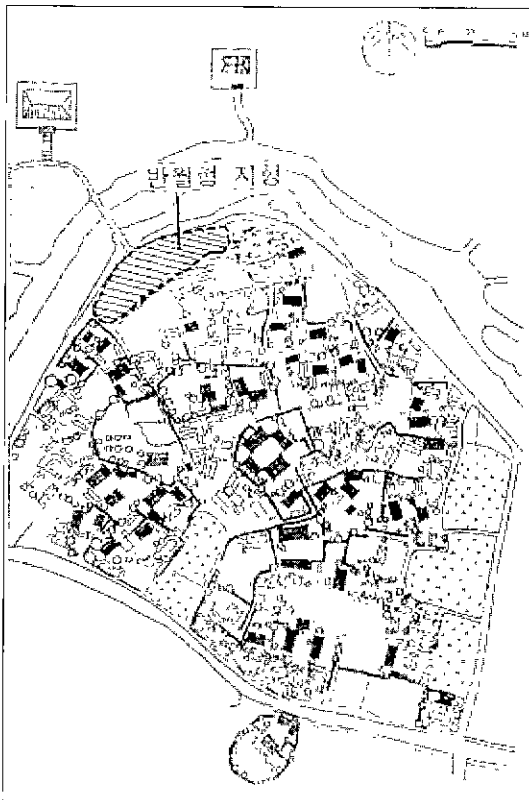


그림 5. 남사마을 중당의 미분공간

각각의 주거공간은 마을 내에서 각각의 위치를 점유하고, 점유된 공간주위에 자신의 사상들을 풀어놓는다. 주거를 정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의식적으로 자연적 절대원리에 순응하며, 절대자와 교류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각 주거공간은 공간 내에서 절대자와 연결하는 역할의 의미로서 승화 공간이다.

(3) 하당 : 하당에서는 마을 동편에 위치한 인들, 바깥들이 개방공간의 성격을 띄고, 승화공간의 측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안들과 바깥들은 경작지이면서 마을주민들이 만나는 개방적인 곳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다 즉 넓은 개방공간에서 각 존재간(인간과 인간, 인간과 경작물)의 교류를 통해 존재 근원성을 획득하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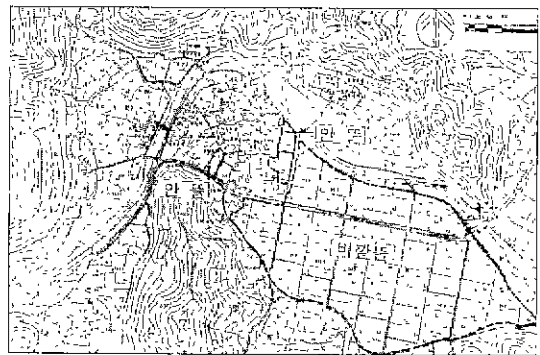


그림 6. 남사마을 하당의 미분공간

3) 순환공간적 측면

순환공간의 상징은 존재 영원성의 순환과 본질현상의 교체이다. 이에 준해서 보면 마을공간은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것으로 존재의 영원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1) 상당 : 순환공간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중당 : 중당은 청계와 안 길에서 선형적 공간특성이 나타나고 중정공간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남사마을을 감싸고도는 '청계'는 풍수 상으로 보면 수태극으로 반월형지형을 더욱 강조하며 흐르고 있다. 물의 이런 형태적 의미는 마을 주민들간의 내적 결속력을 보호하는 의미 상징이며, 끊음 없는 물의 선적인 흐름은 개인들이 바라는 존재의 영원한 순환성<sup>20)</sup>을 나타

낸다.

공간구성 방법중 길 내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길은 바깥 길과 안 길로 나뉘어 진다. 바깥 길은 마을로 진입하는 의미가 강하고 안 길은 내부 순환도로 주민간의 상호교류의 장이며 공동체 연결 끈이다. 남사마을의 바깥 길은 마을 남측으로 지나가며 바깥길을 질러가 외부와의 소통로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해 안 길은 생활의 장으로서 거주지와 거주지를 선적으로 연결한다. 연결된 선적 공간을 인간은 끊임없이 왕래하며 공동체의식의 끈을 잇는 것이다.

(3) 하당 : 순환공간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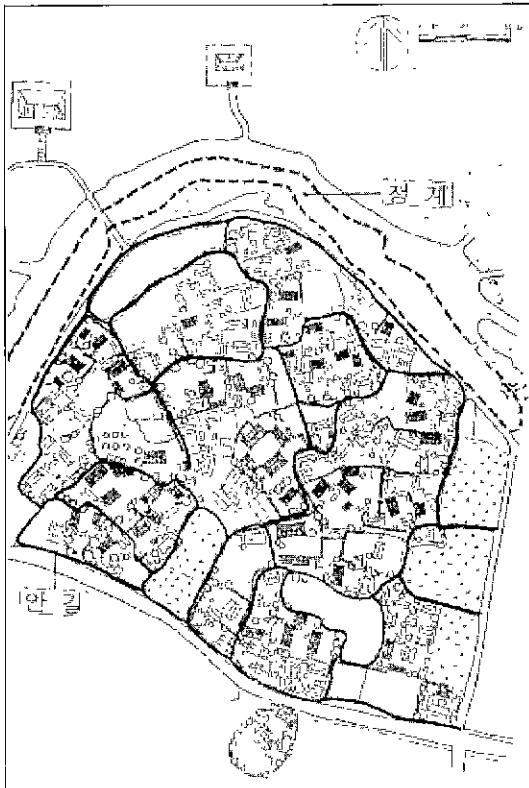


그림 7. 남사마을 중당의 순환공간

4) 지속공간적 측면

지속공간은 미분공간과 순환공간의 기초적 의미를 제공한다. 이 두 개 공간들이 모두 존재의 영구지속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영구지속은 과정적 공간과 매개적 공간을 필요로 한다. 과정적 공간과 매개적 공간은 모두 어느 중요대상(영구지속성)을 향해 가는 단계, 단계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1) 상당 . 상당에서는 풍수적 관점에서의 공간과 휴게적 공간이 매개공간과 과정적 공간으로 각각 관찰된다.

남사마을은 풍수적 관점에서 마을 뒤편에 대숲과 좌측 우산에 소나무를 밀식하였다. 풍수적 관점에서는 비보림이지만, 지속공간측면에서는 자연적 질서에 좀더 접근하려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매개 공간이다. 즉, 인위적 공간(마을)과 자연 사이에 의식적 매개물(대숲, 밀식 소나무)을 둠으로써 좀더 자연적 질서에 동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정자는 니구산 기슭에 위치하며 이름은 '영남정'이다. 영남정은 인간 간(間)의 풍류를 즐기 위한 공간이 이기도 하지만 자연과의 관계를 더 깊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곳이다. 즉 영남정은 인간사교의 틀로서 과정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림 8. 남사마을 상당의 지속공간

(2) 중당 . 이곳에서는 마을내의 소규모 공간에서 과정적 공간이 보여진다.

마을공간 내부에는 반월형 공터 외에도 소규모의 공간(Open space)들이 위치한다. 대별하면 경작지, 마을공터, 규모가 큰 교차로 등이다. 이들 규모성이 있는 공간에 이르는 각 길에는 또한 소규모의 공간들이 위치한다. 이들 소규모의 공간들은 연결되어, 각각 과정적 의미를 가진다. 즉, 목적공간에 이르기까지 심연성을 갖춘 공간체함을 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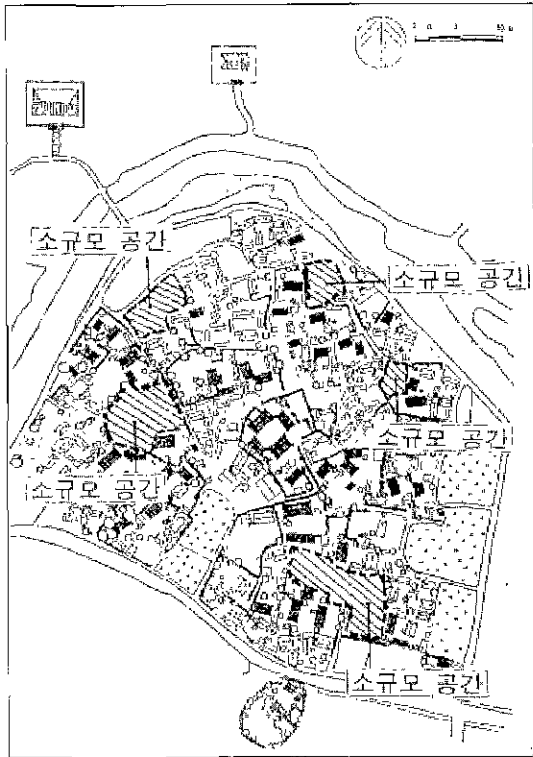


그림 9 남사마을 중당의 지속공간

(3) 하당 : 지속공간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 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속 사상체계에서 연구자가 도출한 무속공간언어에 기초해 작성된 무속공간모형을 추출하여 보았다. 아울러 이 무속공간모형의 타당성을 위해 전통마을공간에 적용, 분석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속 사상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여 인간세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토속적이고 대중적인 사상체계이다.
2. 무속 사상체계에서 추출된 무속공간언어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실존개념과 관계하며, 이는 무속공간언어를 기초해 작성된 무속공간모형이 인간적 공간형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공간조형요소로 추출된 무속공간모형은 미분·순환·지속이었다. 이들 공간모형은 무속공간언어

어들이 의미하는 인간내면 존재의 영원성과 민중들의 순환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인데, 이들은 민중생활 속에서 흔히 보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무속사상체계 내에서 공간모형을 추출해 내긴 했으나, 존재영원성과 순환적세계관이 주축이된 무속공간모형은 물질적 사고에만 쫓아 있는 현대의 인간 삶의 공간에도 적용되어지리라 생각된다.

4. 남사마을에 적용된 3가지 공간모형은 마을의 상당·중당·하당에 각각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미분공간적 측면에서는 다 나타났고, 순환공간적 측면에서는 상당과 하당이, 지속공간적 측면에서는 하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남사마을이 유교적 반촌(班村)마을에서 나타나는 성향인 문중간의 서열, 반장간의 신분차 등이 부분적으로 마을공간조영의식에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무속공간모형을 남사마을에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공간에 이 모형이 적용되었으므로, 이는 남사마을 공간조영의식에 무속 사상적 체계가 투영된 것이고, 무속공간모형의 적용·해석방식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6. 본 연구에서는 김태곤(1980)의 무속사상체계에서 무속공간모형을 추출하였는데, 김태곤의 기초연구는 여러 무속사상체계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의 연구가 대표성을 띄느냐에 대한 검증작업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으며, 또한 무속공간모형을 남사마을에 적용함에 있어 적용비중이 높다고 하여 무속사상체계가 중요하게 마을공간조영의식에 투영되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전통무속사상체계에 대한 일반화 작업과 다각적인 마을조영사상에 대한 학제간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1.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통마을의 공간구조를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 상당(배후지) : 주거지 뒤쪽의 위계가 높은 산과 구릉, 마을의 성소(당집, 성황당, 극사당), 조상의 무덤 등이 위치한다.
- 중당(주거지) : 마을의 중심공간으로 주거와 공공건물

- 이 위치하고, 좋은 전망, 일조·일사에 용이하다.
- 하당(경각지) 상징적인 동구로 표현(숫대, 정승, 비보)되고, 집앞다리 안팎의 텃밭과 마을공간 내부의 안뜰 및 외부의 바깥들로 구분된다.
- 주2 반응적 환경(Responsive environments)이란 사용자에게 가능한 선택 범위를 극대화함으로써 그들의 선택 기회를 풍부하게 하면서,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이다(I. Bently, A.와 Alcock, P. Murrain, 1991).
- 주3 '가정적인 해결책'은 정경일(1987)이 그의 논문에서 사용한 말로서, Christopher Alexander의 『A Pattern Language』에서 유사어 패턴(Pattern)을 해석한 용어이고 본 연구에서도 공간형태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사용하였다.
- 주4 厓樞의 의미가 경험으로 인한 사실을 비교하여 그 관계를 정하고 이것으로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미치려는 정신작용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이상사 편집실 편, 1981).
- 주5 김태곤은 이 '존재'를 그저 '있는 것'이라는 의미일 뿐, 특별히 존재론의 입장을 통해서 보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인간의 눈앞에 형체를 나타내어 '있는 것', 형체는 없지만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김태곤, 1980:156).
- 주6 이 점은 고대 이집트의 건축구조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마스타바, 피라밋, 장제신전 등에 시체를 미이라의 형태로 보관하여 두었다가 신 카(Ka)가 다시 찾아와서 소생시켜주길 기대했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었던 것이다.
- 주7 이 카오스(Chaos)는 하늘과 땅이라는 우주의 공간과 시간이 생겨나기 이전 그대로 무공간 무시간이어서 공간성과 시간성에 의한 존재의 생·멸이 없는 영원체. 그래서 존재(공간성과 시간성에 의한 유형존재)의 무한 시발 근원이다(김태곤, 1980:157).
- 주8 원본사고는 무엇이 '만물의 근원을 신으로' 보게 하였나-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근원과 함께 무엇이 신의 전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원질 문제를 찾는 입장이다(김태곤, 1980:155).
- 주9 '코스모스(Cosmos)'는 카오스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이고,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우주공간으로 유형존재가 영구히 존재하지 못하는 곳이다.
- 주10. 이부영은 개인 의식의 구조를 자아(의식의 중심), 의식, 무의식(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자기, 자아의 그림자로 나누고 부의식층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획득된 그 개인특유의 심적 내용을 개인적 무의식, 어느 누구에게나 이미 선형적으로 루어되고 있는 인간공유의 원초적 체험내용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했다. 이 집단적 무의식은 태초로부터의 인류의 체험의 각인으로서 생물학적인 인간의 뇌의 구조처럼 이미 주어진 여러 가지 원초적 체험의 가능성 혹은 그 가능성을 산출하게끔 하는 조건이라 한다(이부영, 1976).
- 주11 C. Norberg-Schulz는 자연환경의 현상을 사물, 우주적 질서, 특성, 빛, 시간 등의 5가지 요소로 설명하였고 이상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나타내는 경관을 실존적 바탕에서 네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우주적 경관'이다 이 우주적 경관 특성은 광대함이 특징인 사막경관으로 대체 설명되고 있다. 이 사막경관은 거시적 공간을 경험하며, 전체적으로 절대적이고 영원한 질서를 드러낸다고 한다(임승빈, 1994). 임승빈의 내용을 기초로 한다면 우주적 경관의 대표격은 사막경관이고 이 사막경관의 주 특징은 개방적 공간성격 일 것이다.
- 주12 무(巫)라는 글자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 양옆에 서 사람들이 춤추는 꼴"(조흥운, 1997:26)이라면, 기둥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이것은 무의 여러 의례에서 신목, 당산나무 등으로 표현되고 수직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 주13 '순환'의 사전 의미이지만 교체순환 단어 자체를 이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체순환은 순환의 의미가 확대·세분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주14 중정은 "건물과 건물의 사이에 있는 마당"(한글사전편찬위원회, 1980:235)인데 이곳은 건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내부공간이기도 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외부공간으로 인식된다
- 주15. 소쉬르는 기호 중 가장 잘 분화되고 정밀하게 조탁(調琢)된다는 이유로 언어학적인 개념을 기초로 한 기호의 과학적인 연구가 비언어적인 기호들의 분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소쉬르의 기호는 주로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한 변증법적인 합성으로 기호체를 파악하여 기호이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김경숙, 1996).
- 주16 이것은 기표(記票)와 기의(記意)의 관계이다. 소쉬르는 언어 기호 체계를 음성 표현인 기호표현 즉 기표(signifiant)와 기호 내용인 기의(signifie)로 분리하고 있으며 기표는 기의를 포함한다. 기표는 물리적 측면으로 현실적인 형태를 의미하며 기의는 정신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 의미를 뜻한다. 조형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가시적 형태를 기표로, 조형의 의미를 기의로 분리할 수 있다(김경숙, 1996)
- 주17. 내용은 한국전통조형의 '마을' 편의 내용을 정리하였다('92 IFLA 한국조적위원회편).
- 주18. 이러한 관점은 Amos Rapoport(이규복 역, 1985)가 '오직 신성한 장소만이 의미 있고 정주(定住)할 수 있으며, 그것들만이 진정한 장소'라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 주19 동형반복 지형의 특징이 마을에 복을 가져준다고 믿었던 것 같다.
- 주20 우리 선조들은 영혼(개인내적존재)의 존재를 믿었으며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고, 이 영혼은 저승에서 영원히 안녕을 누리거나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됨에 안착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영혼이라는 원질적 존재의미의 순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인용문헌

1. 김원용(1980) 한국문화의 원류. 서울: 탐구당.
2. 김영정(1997) 언이·논리·존재, 서울: 철학과 현실사
3. 강선중(1984) 한국전통마을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태곤(1980)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5. \_\_\_\_\_(1982) 한국무속도록, 서울: 집문당.
6. 김경숙(1996)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강동진, 김원주, 박노천, 전우석(1992) 양동마을의 이야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8. 박명덕(1982) 한국건축의 구조적 의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신왕신(1991) 전통건축 공간 의미의 무속적 해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임승빈(1994) 경관평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1. 이부영(1976) 혼령현상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박영문고.
12. 이영태(1986) 건축형태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상사 편집실 편(1981) 대학원용옥편, 서울: 삼익사
14. 이황기(1980) 조선왕조 건축의 조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필영(1995) 마을신앙의 사회사, 서울: 용진출판주식회사.
16. 윤성호(1987) 한국 사찰건축 외부공간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조홍윤(1997) 한국 찻의 세계, 서울: 민족사.
18. 정경일(1987) 한국 전통 사찰건축 중정공간의 모형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최진영(1987) 조선시대 양동마을의 배치구조 해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한글사전편찬위원회(1980) 한국어대사전, 서울: 현무사.
21. '92 IFLA 한국조직위원회 편(1992) 한국전통조경, 서울: 도서출판 조경.
22. C. Norberg., 김광천 역(1985) 실존·공간·건축, 서울: 태담문화사
23. I. Bently, A와 Alcock, P. Murrain, 김경준 역(1991) 반응적 환경, 서울: 국제.
24. M. Eliade(1970) <Shamanism -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N. Y Pantheon Books.
25. M. Eliade, 이은봉 역(1998) 성과 속, 서울: 한길사
26. Rapoport, A., 이규목 역(1985) 주거형태와 문화, 서울: 열화당